

한반도내 평화운동의 현황과 전망

I. 머리말

한반도에서 평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한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한민족의 역사적 경험이나 현대 국제 정치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자명해 진다고 보겠다. 돌이켜 보면 지정학적인 조건이나 내적 체제 능력의 취약성 때문에 한반도는 때때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에 의해 대외적 안전을 위협받아 왔고 그에 의해 실제로 민족전체가 큰 피해를 받아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더욱이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됨과 더불어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되었고 이후 나타난 민족 내적인 갈등현상은 이 지역에서의 평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분단 이전의 역사를 차치하더라도 그후 45년이 지난 과정에서도 한민족이 남북간의 대결과 갈등에 대해 지닐 수 있는 것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대한 것이었으며, 따라서 이의 극복은 한민족 전체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더욱이 한민족의 생존과 발전적 발전을 위해 평화는 절실히 필요하게 되며 한국과 같은 압축국가의 입장에서 그것은 더욱 필요하게 된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동북아 지역체제나 일민적 국제체제가 전후 냉전적 대결 구조를 탈피하고 다원화 협력과 화해의 구조로 변모하고 있으며 또한 한반도 내에서도 그러한 변화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적극적으로 표출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에 대한 기대와 실현성은 어느 때 보다도 커지고 있다.

II. 한반도 평화운동의 의미

일반적으로 평화의 의미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비교적 보편적으로 각기 다르게 규정할 수 있지만 그것은 지정학적, 역사적, 문화적 상황에 따라 특수하게 규정되기도 한다.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논할 때 역사 마찬가지로 평화개념이 갖는 보편적 속성을 내포한 것으로 그 의미가 규정될 수 있지만 한반도라는 특수한 지역적 조건이나 남북한 분단이라는 역사적, 민족적 상황들을 고려해서 그 의미가 보다 더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반도에서의 평화운동은 그것이 갖는 몇가지 특별한 의미 때문에 그 필요성이 더욱 증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로 한반도에서의 평화운동은 현재 지속되고 있는 민족 분단의 구조를 변형하는 수단으로 필요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그것은 단순한 현실 유지가 아니라 새로운 남북한 관계의 수립이나 발전을 위한 조건이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남북한이 대결 상태를 완화시키고 공존 속에서 상호 협

력체제를 구성해 나간다고 할 때 평화운동은 그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한다.

둘째로 한반도내에 비축되어 있는 군사력을 염두에 둘 때 평화운동은 한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조건으로 필요해진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남북한은 분단 이후 쌍방간에 전쟁을 경험했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비경쟁을 지속해 왔고 그 결과 현재 남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군사력은 한민족 전체의 파멸을 가져오기에 충분할 정도로 증강되고 있다. 한반도에서의 평화운동이

민족, 민주화운동이 내건 이슈가 직접적으로 평화운동이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일제치하에서 겪은 피압박민족의 서러움과 함께 분단된 체제하에서 진행되어 온 사회변혁운동의 평화를 이룩하기에는 너무나 제약된 현실적 한계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그토록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서서히 평화 및 평화운동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을 주지에서 보게 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크게 두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기획시리즈 — 올바른 평화론의 정립을 위하여 <6>

평화 더이상 이용될 수 없다!

그런한 군사력의 합리적인 관리나 현수준에서의 동결 나아가 감축까지를 포괄하게 되는 경우 그것은 곧 한민족의 생존 조건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셋째로 한반도에서의 평화운동은 한민족의 경제적인 번영과 물질적인 문화 공동체의 실현을 위해서도 필요하게 된다. 남북한이 군사력의 증강을 위해 지출하는 경제적 비용은 현재 쌍방에서 다같이 큰 부담이 되는 것은 물론 그 파급효과에 따른 한민족 전체의 문화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임을 두말할 나위도 없다.

끝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한반도에서의 평화운동은 곧 동북아 지역의 평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추론될 수 있다.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할 수도 있었지만 반대로 한반도에서의 평화운동이 동북아 지역의 안정성을 증대시키게 될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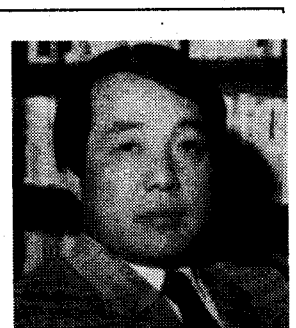
왜냐하면 한반도 문제는 지금까지 동북아 지역에서의 평화를 위협하는 잠재적인 요소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 외에도 한민족의 통일이라는 지상목표를 앞둔 현재 한반도 평화운동의 가치와 필요성이 과거 그 어느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도달해 있으며 동시에 그러한 것들이 현실화 될 수 있는 시대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III. 한반도 평화운동의 흐름

한반도에서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평화운동을 개관하는 데에는 많은 당혹감과 함께 어려움이 있다. 그 이유는 한국 근·현대사에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수많은

그것은 우선 소극적(negative) 평화운동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것으로 전쟁반대와 핵무기주둔반대, 즉 반전반핵운동을 그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다. 실상 1970년대 들어 미국에 대한 비판



신정현
<경향대학교 정치학, 국제평화 연구소 소장>

한 새로운 인식, 1987년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소가 펴낸 '우리 애들만을 살려주소!'를 통해 해본 온산의 공해실태와 주민운동 등 이외도 최근 광주일보사가 펴낸 '예향(1990년 6월호)'에 실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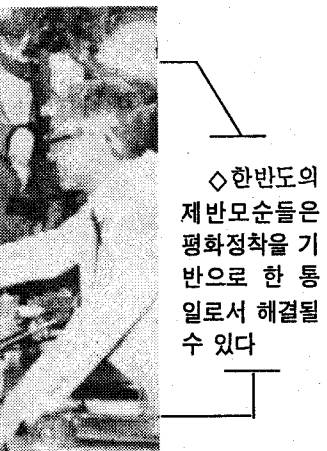
하고 있다.

결국 현실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반도 평화운동을 개략적으로 조망해 볼 때 이전의 평화운동이 소극적 차원에서 평화운동, 즉 반전반핵운동 등에 치중한 것이었



제적, 국제환경적 제 수단을 통해 구축해 나가야 한다.

둘째로 한반도 평화는 동태적 과정을 수반해야 한다. 이것은 한반도에서 실현되어야 할 평화의 진정한 상태의 지속, 즉 현상



◇한반도의 제반모순들은 평화정착을 기반으로 한 통일로서 해결될 수 있다

분단에 기인한 남북대결구조, 자주민주통일의 걸림돌

한반도 평화정착위해 참다운 이념에 기초한 연구와 실천 필요

적 인식이 국내 일각에서 제기되면서 시작된 반미주의와 달리 1980년대의 반미주의가 단순한 감정적 차원을 벗어나서 이념적 차원으로까지 이행하게 된 것은 구조적 폭력에 대한 인식의 확산에 있음을 보여 준다.

즉 1980년 9월 경희대 학생운동에서 미국의 광주 학생 지원비난과 함께 전두환정권에 대한 미국지시체화 주장의 논리적 배경을 살펴보면 한반도에 대한(외세의) 구조적 폭력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음을 쉽게 알게 된다. 그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서의 비평화적 정권을 지지한다는 인식과 함께 고도의 전술책으로 무장되어 있는 주한미군의 주

기형동태를 속속...공포에 떠는 영광원전 이웃마을 사람들'을 통해 볼 때, 체르노빌 원전사고가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상상만 하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경각심과 함께 보다 실질적인 평화운동에 나서게 하였다.

다음으로 그동안 전쟁에 대한 불안과 구조적 폭력에 시달려 오고 있는 평화 및 평화운동에 대한 한치의 전진조차 마련 할 수 없었던 한반도의 상황이었지만, 이 같은 환경에 대한 무관심이 도리어 인간의 기본 삶을 억압하는 사태로 빚어지자 일부에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평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고,

다만 최근의 평화운동은 그것이 적극적인 차원의 평화운동으로 이행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으나 현 한국사회가 가진 현실적 제약으로 말미암아 본격화되기에는 아직 요원한 단계라 할 수 있다.

IV. 한반도 평화운동의 실천적 과제

한반도에서의 평화운동이 실질적으로 의미있는 작업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평화에 대한 개념적 합의가 조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평화개념에 기초한 조차적 평화운동은 주로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갖는다.

첫째로 한반도 평화는 안정된

유지나 힘의 균형 관계가 아니라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변화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한 목적은 곧 남북한 통일을 의미한다. 한반도의 평화운동은 궁극적으로 남북한 통일 국가의 형성을 위한 수단인 동시에 과정이며 따라서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 남북한이 다같이 무력에 의한 통일을 포기할 때 그것에 접근하는 최선의 방법은 변화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변화가 통일을 목표로 하는 과정이라고 할 때 그 과정은 시간적으로 긴 과정이 될 수 있고 또 그러한 과정에는 다양한 조치들이 포함될 수 있다. 실제로서 상호간의 신뢰 구축 조치들을 비

나 유지를 위해 다양한 입장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원칙이나 규범, 규칙 및 정책 결정 절차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한 반도에 평화 정착을 유도해 나가는 제 원칙과 규범, 절차들을 형성하고 유지해 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남북한 관계에 있어 그것은 평화정착의 기능은 궁극적으로 한 반도에서 통일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끝나게 된다. 그것은 평화적으로 통일 국가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필요하게 되기 때문이다. 평화정착이 개념상 현존하는 남북한 관계에서 통일 국가를 실현하기까지의 과정에서 평화를 유

호한 평화운동은 본래 그 성격상 서로 다른 분야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지금까지도 평화연구와 평화실현에 어떤 보편한 체계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정당한 세계질서 체계를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평화 및 평화운동에 관한 연구가치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실상 한반도의 평화 및 평화운동은 일차적으로 한민족의 통일에 의해 완결될 것이다. 그것은 특히 실질적인 전쟁상태나 다툼없는 한반도의 현실에서 보다 나은 민족의 정태를 도모하는 절대적인 요청 뿐 아니라, 정의없이 평화없다는 기본적인 인식을 토대로 한반도의 대내외적 평화, 즉 사회정의의 구현과 함께 대외적 평화를 위한 기초작업이 되기 때문이다.

물심사는 순서

1. 평화의 개념과 평화운동의 의미
2. '사회주의 평화론'의 발전과정
3. 서유럽의 평화운동 성과에 대한 비판적 고찰
4. 평화운동의 시각에서 바라본 동구권 변혁
5. 민족주도의 해결과로서 정립되는 평화운동(아·태지역 중심으로)
6. 한반도내 평화운동의 현황과 전망
7. 기획서

뜻해서 군속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제도적으로 연합이나 연방을 실현하기 위한 예비적 조치들에서부터 통일국가를 실현하는 절차나 제도의 마련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단계나 구체적 조치들을 포함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 경우 평화는 한반도에서 통일 국가의 목표를 지향하는 총체적인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여기서 한반도의 평화운동은 변증법적 동태성을 띠며 궁극적으로 남북한 통일을 향한 창조적인 과정으로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한반도에서 평화는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 즉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적극적 평화운동의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 문제야말로 향후 한반도 평화운동의 성패를 판가름할 결정적인 과제이지만 아쉽게도 이러한 논의는 아직까지 본격화 하지 못한 단계이다. 그것은 분명 한반도의 통일에 의해 상당부분 해소된다고 하겠지만 구조적 폭력체제를 비롯한 적극적 평화운동의 과제는 통일 이후에도 제기되는 명제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한 평화운동은 다양한 측면에서 모색될 수 있으나, 한반도의 분단현실 극복이라는 일차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먼저 소극적 평화운동의 차원에서 시작할 수 밖에 없다. 여기서는 최근 평화정착이라는 개념을 하나의 분석적 개념으로 설정하여 한반도의 상황에 구체적으로 적용한 한 논의를 일부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에 의하면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은 남북한이 평화 구축이

도, 정착해 가는데 필요한 다양한 원칙과 규범형태의 절차들을 형성, 유지 강화해 나가는 것이므로 한반도에서 하나의 통일국가 정부를 수립할 경우 그 존재이유는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남북한은 평화정착의 구축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그 주된 논지이다.

사실 그간의 공식, 비공식 차원에서 이루어진 한반도의 평화 및 평화운동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면 안타깝게도 보잘것 없는 것이 분단된 우리 조국의 현실이다. 물론 이에 대한 반박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우리 사회가 언제 사적인 평화 및 평화운동에 대한 논의를 할 만큼 여유가 있었던 적이 있으며, 더욱이 일찍이 제기되었던 평화통일론조차 반공이데올로기의 불모가 되었을만큼 열악한 상황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명이 일종의 상황논리는 필자언정 역사 앞에 정당화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현실적인 인식이 뒷받침 때에만 평화운동이 올바른 방향을 상실하지 않게 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V. 맺음말

평화운동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그에 앞서 참다운 이념에 기초한 평화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실상 평화운동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두 주제는 평화연구와 평화실현인데도 이에 관해 등한시 해 온 는 결이다. 이같은 두 주제를 올바르게 결합시키면서 양자가 서로를 고양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과제는 시급한 문제이다.

또한 평화운동은 본래 그 성격상 서로 다른 분야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지금까지도 평화연구와 평화실현에 어떤 보편한 체계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정당한 세계질서 체계를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평화 및 평화운동에 관한 연구가치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실상 한반도의 평화 및 평화운동은 일차적으로 한민족의 통일에 의해 완결될 것이다. 그것은 특히 실질적인 전쟁상태나 다툼없는 한반도의 현실에서 보다 나은 민족의 정태를 도모하는 절대적인 요청 뿐 아니라, 정의없이 평화없다는 기본적인 인식을 토대로 한반도의 대내외적 평화, 즉 사회정의의 구현과 함께 대외적 평화를 위한 기초작업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일과 삶을 가꾸는 소리...

'목동은 놀자말고 농우(農牛)를 보살피라
뜨물에 물먹이고 이슬 풀자로 뜯겨
그루같이 도심으 기 해를 빌리라...'

농가월령가의 한 구절처럼 5월이 되면, 이 땅의 곳곳에서는 우리들의 일과 삶을 가꾸어가는 소리로 들리게 된다.

이른 아침부터 날이 저물 때까지, 바쁘게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함께 일할 양식을 애써 가꾸는 건강한 모습들— 농촌에서, 어촌에서, 도시에서... 이렇게 우리 모두가 제몫의 삶을 진솔하게

가꾸어 나간다면, 대지(大地)는 또한 풍성한 수확을 약속하며 스스로를 일구어 줄 것입니다. 우리들의 어머니와도 같이 편안하고 포근하게 이 땅의 삶을 감싸안을 것입니다.

그러하여 이 좋은 계절에, 우리들이 대지를 굳게 밟고 설 때, 뿌리고, 가꾸고, 거두고, 나누는 일을 소중히 하는 많은 이들과 함께—

대우가 있습니다.